

2015 / 07 / 01 (WED)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 섹터는 혼조세. 그리스 채무협상에 대한 관망세 형성된 가운데 중소형 IT 주들은 반등세를 보인 반면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약세 보이며 혼조 마감.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삼성SDS, SK C&C 강세. 반면 외인의 매도세로 LG이노텍, NAVER, 삼성SDI 약세.

종목별로는 융합보안과 물류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SK C&C가 3.0% 상승 마감.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78.58	-0.5%	-7.7%	-478 억	244 억
KRX Semicon	1,891.56	0.3%	0.8%	-264 억	-43 억
(코) 반도체	987.93	0.7%	23.9%	21 억	20 억
(코) IT H/W	411.14	0.9%	17.9%	115 억	5 억
(코) IT S/W	2,276.90	0.7%	13.9%	-40 억	186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68,000	-1.0%	-4.4%	0 억	-127 억
LG전자	47,200	0.1%	-20.1%	70 억	-56 억
삼성SDI	111,000	-2.2%	-4.3%	-35 억	-60 억
삼성테크윈	29,300	0.2%	22.9%	-18 억	-13 억
서울반도체	16,000	1.6%	-20.8%	6 억	0 억
신도리코	64,200	-2.1%	-5.3%	-1 억	-3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2,300	-0.7%	-11.4%	-240 억	68 억
이오테크닉스	93,900	2.8%	-25.1%	-37 억	2 억
월익IPS	14,200	3.6%	1.8%	14 억	-13 억
리노공업	50,900	1.2%	32.9%	-9 억	15 억
유진테크	16,000	-2.1%	-0.9%	-8 억	0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9,500	4.0%	-11.6%	16 억	32 억
SK C&C	276,500	3.0%	29.5%	6 억	49 억
포스코 ICT	5,340	0.9%	0.8%	1 억	0 억
다우기술	27,700	-2.1%	131.8%	-122 억	41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34,000	-2.6%	-11.0%	-123 억	92 억
다음카카오	126,200	0.2%	2.1%	-53 억	186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5,850	2.8%	-23.2%	129 억	-26 억
에스에프에이	49,200	0.9%	-0.9%	-2 억	1 억
솔브레인	48,850	1.2%	51.9%	-2 억	5 억
덕산하이메탈	10,800	-0.9%	-3.1%	-7 억	-1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1,100	0.6%	-6.6%	18 억	-9 억
LG이노텍	100,500	-3.4%	-10.7%	-69 억	9 억
파트론	8,470	1.1%	-27.9%	-7 억	7 억
루멘스	4,645	4.5%	-34.1%	4 억	1 억
일진디스플레이	8,660	-2.1%	27.0%	5 억	-4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8,500	0.0%	9.1%	-81 억	86 억
컴투스	123,800	-1.4%	-7.4%	-32 억	0 억
NHN엔터테인먼트	59,600	2.1%	-31.9%	-28 억	27 억
게임빌	86,400	0.7%	-28.4%	8 억	3 억
위메이드	36,100	0.8%	-4.5%	1 억	9 억
선데이토즈	16,400	-0.3%	-4.7%	3 억	-3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28,000	0.8%	406.9%	3 억	3 억
한글과컴퓨터	18,000	0.0%	-10.9%	-8 억	-4 억
코나아이	33,000	1.5%	-2.1%	-8 억	2 억
슈프리카	23,000	-2.3%	-9.6%	2 억	-1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48.73	0.2%	1.2%
MSCI Internet	159.93	0.4%	4.7%
MSCI Software	163.72	-0.4%	0.1%
MSCI Semicon	211.58	0.4%	-3.9%
MSCI IT Services	122.13	0.1%	3.7%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40.04	-0.2%	1.8%
Facebook	85.77	0.0%	9.9%
Tencent	154.70	1.0%	37.5%
Baidu	199.08	-0.7%	-12.7%
Yahoo	39.29	1.0%	-22.2%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4.15	-0.5%	-5.0%
Oracle	40.30	-0.3%	-10.4%
SAP	70.23	-0.6%	0.8%
EMC	26.39	1.5%	-11.3%
Symantec	23.25	0.0%	-9.4%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5.42	0.7%	13.6%
Nokia	6.85	-0.9%	-12.8%
Lenovo	10.74	4.1%	5.3%
ZTE	19.72	1.1%	17.1%
HTC	72.0	-3.0%	-49.3%

Semicon	close	1D	YTD
Intel	30.41	0.1%	-16.2%
Qualcomm	62.63	0.0%	-15.7%
Texas Instruments	51.51	0.0%	-3.7%
Micron	18.84	0.6%	-46.2%
Toshiba	421	1.2%	-17.8%
Renesas	875	-1.7%	6.3%
STMicro	8.12	-1.0%	8.7%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2.66	-0.2%	1.4%
HP	30.01	0.1%	-25.2%
Accenture	96.78	0.1%	8.4%
Fujitsu	684	-2.2%	6.2%
NTT Data	5,350	0.9%	18.5%
CSC	65.64	-0.2%	4.1%

Hardware	close	1D	YTD
GE	26.57	-0.3%	5.1%
Panasonic	1,682	-1.6%	17.8%
SONY	3,462	-8.3%	40.0%
Whirlpool	173.05	-0.4%	-10.7%
Electrolux	259.80	0.1%	13.5%
Haier	20.90	3.2%	13.2%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1,360	1.0%	61.2%
KYOCERA	6,363	0.9%	14.5%
Nidec	9,165	0.6%	16.7%
TDK	9,370	0.3%	30.9%
Ibiden	2,070	-2.0%	15.8%

Display	close	1D	YTD
Sharp	149	-3.2%	-44.4%
Japan Display	461	-1.1%	24.6%
AUO	4.46	3.0%	-12.4%
Innolux	16.10	5.9%	4.5%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LG디스플레이	129 억	SK하이닉스	-240 억
LG전자	70 억	NAVER	-123 억
KH바텍	24 억	다우기술	-122 억
비트로셀	18 억	엔씨소프트	-81 억
삼성전기	18 억	LG이노텍	-69 억
삼성에스디에	16 억	다음카카오	-53 억
LS	16 억	이오테크닉스	-37 억
월익IPS	14 억	삼성SDI	-35 억
가온미디어	12 억	컴투스	-32 억
지트리비엔티	12 억	NHN엔터	-28 억
LS산전	10 억	삼성테크윈	-18 억
유비쿼스	9 억	다원시스	-12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다음카카오	186 억	삼성전자	-127 억
NAVER	92 억	삼성SDI	-60 억
엔씨소프트	86 억	LG전자	-56 억
SK하이닉스	68 억	한국사이버결	-28 억
SK C&C	49 억	LG디스플레이	-26 억
다우기술	41 억	KH바텍	-15 억
삼성에스디에	32 억	삼성테크윈	-13 억
NHN엔터	27 억	월익IPS	-13 억
월익머트리얼	20 억	유니셈	-12 억
리노공업	15 억	데스	-12 억
코텍	12 억	LS	-10 억
아이원스	12 억	삼성전기	-9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738.73	-0.3%	-11.2%
DDR3 2Gb (Spot)	1.51 \$	0.0%	-31.7%
NAND 64Gb (Spot)	2.60 \$	-0.8%	7.4%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3 \$	-3.5%	-11.7%
LCD TV 50" Open Cell	199 \$	-0.5%	-1.0%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SK C&C	3.0%	최근이슈

점점 닳아가네, 치열 경쟁 예고되네", 삼성SDS vs SK C&C

SK C&C와 삼성SDS가 물류서비스 영역에서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 삼성SDS가 앞서 진출한 물류, 보안 등의 영역에 SK C&C도 뛰어들겠다고 나서 '강(強) 대 강(強)'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오는 8월 지주회사로 새롭게 탄생하는 SK C&C IT부문의 사업구조는 전통적 IT서비스와 물류, 보안을 아우르는 IT서비스 융복합 분야로 보다 세분화. 삼성SDS 역시 기존부터 IT서비스와 물류BPO를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음.

SK C&C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강조한 물류 부문은 삼성SDS가 이미 신사업으로 발굴해 육성하고 있는 분야. 기업 경영에 있어 물류가 차지하는 부분이 증대되면서 물류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 Arm strong & Associates에 따르면 2014년 기준 '3자 물류' 시장 규모는 2012년 대비 4.00% 성장한 6,627억달러. 2015년에는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4.56% 확대된 6,929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물류는 IT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IT서비스 회사 입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꼽힘. 기업 간 교역 범주가 넓어지고 생산 기지가 확대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IT시스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

삼성SDS 전체 매출 가운데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상회. 지난 1분기 물류BPO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2.8% 증가한 6,437억원. 오는 2020년 물류에서만 매출 7~8조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음.

SK C&C는 물류 시장에 직접 사업자로 진출해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결합한 '스마트물류'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물류량을 예측하고 운송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른바 '융합물류 ICT플랫폼' 개발에 나섬. 오는 2017년부터 대만 홍하이 그룹을 통한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스마트물류를 중국 중심 사업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

SK C&C가 물류와 함께 신규 사업으로 제시한 보안도 삼성SDS와 중첩되는 분야. SK C&C는 빅데이터, IoT 등의 솔루션과 보안시스템 구축 경험을 활용해 무인경비, 영상감시 등의 융합보안 부문을 육성한다는 방침.

보안 영역에 있어 삼성SDS는 모바일기기 관련 보안 솔루션에 주목하고 있음. 전동수 삼성SDS 사장이 "내년 성장 엔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 삼성SDS가 자체기술로 만든 생체인식 인증 솔루션은 FIDO(Fast IDentity Online)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해외 시장에 출시할 예정.

두 회사는 영역 확장을 위한 M&A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강조. 삼성SDS는 작년 상장 당시부터 M&A 의지를 피력해 왔고 SK C&C도 합병 후 확보한 1.2조원에 달하는 보유자금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박정호 SK C&C 사장은 SK와의 합병 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29일 계열사 및 협력사 임직원들과 만나 "SK C&C는 국내 IT 기업 간 M&A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ICT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게임의 룰 체인저(Game Rule Changer)가 되겠다"고 강조.

전자부품 Component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LG이노텍	-3.4%	실적전망

LG이노텍, 2Q 실적 부진 전망, LED 적자 개선 난항

LG이노텍이 2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약세.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1.5조원, 영업이익은 27.5% 줄어든 652억원으로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주요 요인은 주력 거래사인 LG전자의 TV사업 부진으로 LED 부문의 적자폭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TV 성수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BLU용 LED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며 전체 LED 매출액은 전분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LED 부문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적자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수출 증대형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회복될 경우 실적 모멘텀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LG이노텍의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 존재. 글로벌 IT 세트 수요 부진으로 국내 Tech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동사는 중국 내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애플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다른 업체들 대비 실적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이다. 최근 애플이 신규 벤더를 추가할 것이란 전망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우려스럽지만 신규벤더가 추가되더라도 애플의 주력 공급업체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반도체 Semicon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시장동향

News & Issue

PC D램 가격 하락 지속, 업계 영향은?

PC D램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관련 업계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D램의 스페인지에 따르면 PC D램 가격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지속 하락세. 지난 5월말 4Gb DDR3 PC D램의 고정거래가격은 2.75달러로, 작년 10월 3.78달러 대비 27.2%나 하락.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 주 2015 회계연도 3분기(2015년 2월~5월)에 매출 38.53억달러, 영업이익 6.31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24.7% 감소한 수치.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7.5% 줄고 영업이익은 26.1% 감소. 순이익은 4.9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나 급감. 이 같은 실적은 컨센서스를 밀도는 것. 마크 더칸 마이크론 CEO는 "PC 시장 침체로 실적이 악화됐다"고 설명.

PC D램 가격이 이처럼 하락세인 이유는 PC 수요가 D램 공급량과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난 데에는 삼성전자가 PC D램 물량을 일부 늘린 것도 영향을 미침.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20나노 공정 PC D램 물량을 확대함. 아직 20나노 공정 D램을 양산하는 업체는 삼성전자가 유일.

시장에선 PC D램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상. 삼성전자의 경우 미세공정 전환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3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

SK하이닉스 역시 PC용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을 일부 받겠지만 모바일 D램의 비중이 높아 견조한 실적을 이어나갈 전망.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4조원대로 견조할 전망. 2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며 모바일 D램 수요가 늘어나는 3분기에는 다시 실적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SDI	-2.2%	실적전망

News & Issue

삼성SDI, 실적개선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에 약세

삼성SDI는 실적개선이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에 약세. 2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 감소한 1.917조원, 영업이익은 59.8% 줄어든 160억원을 기록할 전망.

실적부진의 주요인은 소형전지(IT)와 중대형전지(EV, ESS)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소형전지는 폴리머전지 출하량 증가가 긍정적이지만 각형의 매출이 감소.

또한 중대형전지는 매출이 전분기 대비 31.5% 증가해 올 하반기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상태지만 2분기는 간접비 반영 부담으로 적자 규모 축소가 미미할 전망.

소재부문은 전분기와 비슷하게 견조한 성장과 이익이 예상됨. 저유가 지속으로 화학부문의 안정적인 마진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편광필름 및 OLEDD 출하량 증가로 전자재료 매출과 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현재 소재부문이 전체 이익을 주도하고 있음.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SONY	-8.3%	최근이슈

News & Issue

소니, 4400억엔 조달, 이미지센서 생산 확충

일본 소니는 30일 공모 증자와 CB 발행을 통해 최대 4,400억엔(약 4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발표. 이는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의 생산능력 확충과 연구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함.

소니가 공모 증자를 시행하는 것은 1989년 7월 2,316억엔을 조달한 이후 26년 만. 올 들어 일본 기업이 시행하는 증자 중에서도 최대 규모.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미지센서 등 장치산업 부문에 투자될 예정. 회사 측은 지난 4월 이미지센서 설비투자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 전분기 대비 다섯 배 정도인 2,100억엔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니가 최근 수년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 투자를 본격화 하고 있다고 보도.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Sharp	-3.2%	최근이슈

S&P. 샤프 신용등급 '선택적 디폴트(SD)'로 강등

S&P가 30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전자업체 샤프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로 강등했다고 밝혔. 이날 강등은 샤프가 재무건전화 차원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하기보다 주력은행들에 우선주를 발행했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

S&P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 거래를 'SD(selective default)'로 규정하는 출자전환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샤프에 대한 신용등급을 SD로 떨어뜨렸다"고 설명. S&P는 "우리는 샤프의 장기 채권과 CP에 대한 관찰대상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S&P는 현재의 등급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언급. S&P는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우리는 샤프의 재무상황을 점검한 뒤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등급을 'SD'에서 상향 조정할 것이다"고 설명.

샤프는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내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수년 동안 경쟁 심화로 인해 TV사업 부분에서 축발된 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옴. 지난달에는 전세계적으로 4.9만 명을 상대로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 이는 전체 임직원의 10% 수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1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7월 1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7월 1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